



◇ 강원도 영월군 고씨동굴은 불상과 판형식의 신기한 석순들이 즐비해 불자들의 권 탄을 사고 있다.



◇ 경상북도 울진군 성류굴은 동해에 인접해 있어 인근 해수욕장과 함께 찾을 수 있다.

## 동굴탐험 + 사찰참배 = 남다른 여름

올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특별한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사찰을 찾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거기다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도 곁들인다면 그야말로 일거삼득이 될 것이다. 어디 그런 곳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천연동굴을 찾아 태고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을 배운 뒤 사찰을 찾아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올 수 있는 코스를 택하면 된다.

천연동굴이란 땅 표면에 자연적으로 뚫린 굴로서 그 속에는 수천년 간 형성된 온갖 가지 모양의鍾유석이 연출해 내는 비경이 숨어 있다.鍾유석이 형성되며 만들어진 불상의 형태는 불자들을 더욱 감동시킨다. 천연동굴은 태고 습하다. 11~14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해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훈훈하다. 우리나라의 동굴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지방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역에 있어 찾아가는 길부터 남다른 감흥을 준다. 또 인근에는 어김없이 우수한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어 동굴탐사와 함께 마음을 쉬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 삼척 환선굴

덕항산, 솟대봉 등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산악경관을 자랑하며 한국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는 삼척시 대리 동굴지대에 환선굴이 있다. 이 지대에는 환선굴, 양터목굴, 덕발굴, 개암굴, 큰재굴 등 동굴이 밀집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환선굴은 총연장 6.2km에 개방구간 1.6km로 중앙 최대 석회동굴이다. 이곳에는 폭이 100m를 훨씬 넘는 광장과 옥좌대, 크고 작은 동굴도 등 어느 동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멋이 숨겨져 있다. 환선굴을 중심으로 1시간 거리에는 영동지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통일신라시대의 불상들이 분포된 삼화사, 신라의 고찰 삼장사, 영운사, 천운사 등 사찰이 위치해 있다. ☎(0395)41-9266

**가는 길** 서울 청량리에서 영동선 이용. 신기역에서 하차. 승용차는 동해고속도로 태백IC를 경유해 신기면까지.

### 동해 천곡동굴

두타산 무룡계곡과 삼화사 그리고 동해를 한눈에 바라보는 감추사 절경을 함께 볼 수 있는 천곡동굴. 강원도 동해시 초록봉 기슭의 언덕 밑에 배대하고 있는 천곡동굴은 석회암이 침식해 생성된鍾유굴이다. 총 연장 1400m로 작은 규모의 동굴이지만, 한국의 동굴 중에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동굴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곳의 자연학습장에는 동굴 생성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한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0394)530-2488

**가는 길**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동해행 버스 이용. 동해에서 천곡동굴행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영월 고씨동굴

영월에서 단양쪽으로 6.4km 떨어진 남한강 상류지역에 500년전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석회암동굴이 고씨동굴이다. 입진연대 왜군과 만행을 피해 고씨일가로 이루어진 부락 주민들이 피난했다 하여 고씨동굴이란 이름을 붙였다. 총길이 6.3km인 고씨동굴은 절묘한 모양의鍾유석과 석순이 장관을 이뤄 인위적 조각품을 방불케 한다. 이 중에는 동굴진주, 돌장미, 불부처 등鍾유석이 특유의 관 공채를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라 신덕여왕 때 자장승사가 가져온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적멸보궁 불상사와 영월 보덕사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장릉을 찾아 역사를 배우는 것도 권장한다. ☎(0373)70-2545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영월행 직행버스 이용. 승용차는 제천에서 38번 국도 경유해 영월까지.

### 단양 온달동굴

온달동굴이 도를 닦았다고 전해오는 온달동굴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훼손되지 않은 태고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현재도 동굴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온달동굴은 4955년만 년 전에 생성된鍾유굴로 희백색의 석순과 아가지기만 여성스러움이 특징이다.

온달동굴을 한바퀴 도는 데 30분이 소요된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동굴 원전 산파대기에는 온달산신이 1400년의 세월에도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다. 산성에 올라서면 남한강과 천대봉 총본산인 구인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0444)423-8820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구인사행 버스 이용. 승용차로는 중앙고속도로 서계천IC를 지나 5번 국도 이용해 신단양까지.

### 단양 고수동굴

동굴 길이 1.3km. 그러나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이 더해낸 고수동굴을 걸어 다니는 것은 즐거운 그 자체다. 고수동굴을 장식하고 있는鍾유석의 형상은 치솟기도 하고 비단폭포처럼 흘러 내리기도 하는 천태만상.

이중에서 신비한 광채를 발하고 있는 솟대바위, 천불동, 만물상 등이 당면 백미이다. 시간을 넉넉히 잡는다면 단양팔경을 둘러보고 동형을 넘어 영주·봉화지역의 화방사, 부석사, 비로사, 죽서사 등 고찰을 찾아 법당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방사는 신라시대의 두운(洞雲)선사와 효암이에 얽힌 경전설화가 전해지는 고찰. ☎(0444)23-3071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단양행 버스 이용. 승용차는 영동고속도로 남원주IC 경유. 제천시 5번 국도 이용해 단양으로 가면 된다.

### 홍시학박사의 동굴이야기

동굴탐사는 자연의 신기(神奇)만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숨결을 느끼고요. 자연의 창조와 생태 변화의 과정을 한 눈에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 땅속에 펼쳐진 자연신비 '감성' 들어갈때 최소한의 소지품만

우리나라 동굴은 생성원인에 따라 석회동굴 용암동굴 해식동굴로 구분합니다.鍾유굴이 바로 석회동굴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생각하기 쉬운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용암동굴과는 달리 내부에鍾유석과 석순, 석주, 석화 등의 장관을 담겨 감상할 수 있는 동굴이죠. 이것은 지표면에서 스며든 수분이 석회암층을 용해시켜 동공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천정과 벽면에 갖가지鍾유

석과 석순 등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암동굴은 용암의 표면이 응고될 때 내부의 가스가 용암이 밖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생긴 터널 모양의 동굴입니다. 단조로 수백에 없겠지요.

동굴의 수명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생태계가 얼마나 잘 보존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개방이 되면서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바른 동굴탐사는 훼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굴에 들어갈 때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람객 소지품이 바로 동굴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동굴을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동굴학회 명예회장)



○영양 자수정동굴에서는 자수정의 화려함과 부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다.

### 울진 성류굴

신라 31대 신문왕의 아들 보현대자가 굴안에서 수도하고 사찰을 건립한 동굴 사찰 성류사. 천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성류사는 없지만 성류굴은 남아있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길이 470m 석회암동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류굴은 기암괴석 석순 석주 석탑 등으로 금강산을 연상케 해 일명 지하금강이라고도 불린다. 만불상, 지옥동, 미륵 등 등 12개 크고 작은 공장이 있다. 30분 거리엔 불영계곡의 절경 속에 위치한 불영사가 있으며 북쪽으로 칠보산 유급사가 있다. 유급사에서는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0565)82-4006

**가는 길**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울진행 버스 이용. 승용차는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36번 국도를 이용.

### 영양 자수정동굴

'감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보석 자수정과 인공 조성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영양 자수정동굴. 이 동굴은 한때 세계 최대의 자수정 생산지였다가 폐광 후 관광동굴로 탈바꿈한 인공동굴. 총 연장 2.5km인 자수정동굴을 한 바퀴 돌아보는 데는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자수정동굴에서 영취산과 적멸보궁 통도사, 석남사, 운문사 등으로 가는 길은 경관이 좋다. 영취산은 인도의 명산 영취산과 모양이 비슷해 자장승사가 통도사를 창건할 때 이름을 빌렸다고 한다. ☎(052)254-1515

**가는 길** 서울 경부고속터미널에서 영취산행 버스 이용. 승용차는 경부고속도로 영양IC 경유해 36번 국도 이용.

### 제주지역 동굴들

제주 화산로 해변에 우뚝 솟은 산방산. 이 산 중턱에는 100여명 규모의 산방굴사가 있다. 절이 아니라 단지 불상이 모셔져 있다. 천연기념물 236호로 지정된 쌍용굴과 가깝다. 쌍용굴이 있는 곳은 현재 동굴지대로 협재굴, 대암천굴, 황금굴, 초깃굴 등이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